

自我란 무엇인가

自我의 哲學的 考察(中)

安浩相

二, 反省的 自我

사람은 自然과 社會의 □約으로 □□ □□□의 □物이다. 環境은 사람의 靈肉을 支配하며 사람의 □□과 行爲를 □約한다. 제의 自我的 生의 存在를 □持하려면 사람은 제의 環境에 만자야된다. 만일 環境의 要求에 應치않으며 環境의 □□을 吸收할 能力이 없다면, 그의 存在는 더 다시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. 環境의 □□만이 이 □□에 살 수 있다는 것을 生物學이 벌써 □明되지 않았는가? 適者生存은 生物의 永遠한 法則이다.

제의 生死存亡을 環境에 맡겨둔 人間

그는 힘없는 者이다. 힘없는 者는 活動할수 없다. 그는 오즉 따를 뿐이며 □□뿐이지 따르게 하며 좇게 하지는 못한다. 그는 그러므로 오직 □□的 □이다. 그러면 사람의 本能은 오직 受動的뿐일까? 아니다! 그것은 그러 치도 않다. 反省하는 □□은 受動的인 奴隸만이 아니라, 能動的인 主人인것을 또한 알 수 있다. 사람은 受動的인 때문에 또한 能動的이다. 왜그러냐면 受動은 能動的의 前提 밑에서 되는 때문이다. 이것을 다음의 例로서 밝힐 수 있다. 우리의 肉身은 □□의 食物의 □□와 吸收를 前提잡는다. 그러면 □□의 □□性은 오즉 □□的 □이기 □아니다! 만일 그것이 오즉 受動的뿐이 었드래면 吸收한 그 食物은 우리의 肉身에 下等有益이 없을 것이다. 뿐만 아니라 □□에 가득이 吸收한 食物은 도리어 우리를 □□게하며 또 죽게도 한 것이다. 그러므로 우리의 生과 □□에는 □□의 吸收力 보담 □□의 消化力이 □必要하며 이 □化力은 그 다른 곳이 아니라 곧 □□의 活動力과 能動力이다. 뿐만 아니라 生物學的으로 본 □□의 吸收力은 제 自體가 벌써 □□의 消化力 곧 能動力을 □□잡는다. 왜그러냐면 消化치 못한 食物은 □□한 意味에선 能動□ 없는 受動만 없을 뿐 아니라, 受動□는 能動이 또한 없다. 事田의 根本에 들어가선 能動과 受動은 두 □□的 □□들이다.

이것을 미루어 環境과 사물의 □□關係를 알 수 있다. □□的이란 環境이 도리어 受動的이오. 受動的이라는 사람이 또한 能動的이다. 만일 사람이 環境에 受動的만되고 能動的이 못 된다면, 사람은 環境의 支配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며, 環境의 歷史에 反抗치 못할 것이다. 사람은 環境의 指針만 따를 뿐이다. 그래서 環境의 好不好가 於人於事의 好不好를 左右할 것이다. 그러면 참말 偉人偉□는 오직 順好한 環境에서 되었는가? 아니다! 우리의 過去와 現在의 □□은 그와 反對를 가르킨다. 現代의 □文明은 四時長春의 好環境인 南國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一年多寒의 □環境인 北國에서 더 찬란케 發達되었으며, 人類史上에 永遠한 光明이 되는 그 偉人들은 幸運의 環境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不幸한 環境에서 태어났다. 그러므로 環境의 好不好가 결코 사람의 才와 偉人, 그들은 外□環境의 □不를 넘지 않고, 오직 自我理性的의 暗示만 받아서 저의 갈 길만 짓고 마는 法이다.

自然과 社會의 環境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, 사람이 또한 環境에게 影響을 줌이 明白한 事實이다. 北國의 사나운 自□을 征服해서 人生의 幸運의 生을 □□케 해서 人類文化를 建設하며 또 不公平한 社會를 公平케 만드는 것, 이것은 모두가 오직 사람의 힘과 精神으로 되는 지라. 어찌 環境이 사람을 떠나 成立할 수 있으리오! 사람이 環境의 產物이 아니라 도리어 環境이 사람의 產物이다. 사람과 環境, 이들이 이와 같이 서로서로 產出하며 또 產出해이는데 이 矛盾은 永遠이 成立할것이다. 그들의 이와 같은 相互의 否定과 肯定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즉 제것□된 제의 辨證性(辨證法)이다.